

- ☐ 세종시당 : 044-868-2018  
(30100) 세종시 아름서1길 13-1 706호
- ☐ 수석대변인 : 김현미 (010-3974-0020)
- ☐ 대변인 : 김민정 (010-9944-0137)
- ☐ 대변인 : 박범중 (010-9302-7428)

##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유린한 중대 범죄 행위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만들어 온 나라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칼을 든 군인들을 동원한 불법 계엄을 통해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의 주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지난 12월 3일 밤, 헌법이 명시한 국가 비상사태 요건조차 완전히 무시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 행위다.

계엄령은 국가의 가장 위급한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조치다. 하지만 이번 불법 비상계엄은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정치적 안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획책한 내란 행위에 다름없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있어 45년 전 전두환이 저질렀던 군부 쿠데타에 버금가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계엄령이 발동된 몇 시간 동안 국회를 점거했던 군은 국민을 지키는 역할이 아닌, 정권의 친위 도구로 전락했다. 경찰 역시 시민의 안위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계엄 체제의 일원으로 동원되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은 물론, 자유와 정의를 지켜야 할 군과 경찰의 이름까지 더럽힌 행위다.

계엄령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 역사적 반역행위가 끝난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노한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과 계엄령 선포에 가담한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끝)

2024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